

지역사회의 사회심리학적 연구: 그 성격과 접근법¹⁾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지역사회의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주제 및 방법론의 다양화 추세에서 부상될 수 있는 주제이다. 본고는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의 성격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방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들이 지역사회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방법론적 접근으로써 사회표상론적 접근(Moscovici, 1984)의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광주는 해마다 5월경이 되면 독특한 분위기가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을 일컬어 '5월 증후군'이라 한다. 이 증후군은 투쟁의식과 행위, 무력증, 상실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1980년 5월 항쟁이후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근 10년을 생활하고 있는 필자는 사회심리학자이므로 이 현상에 대하여 주위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다칠 때마다 필자는 그 대답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해 본다. 예를 들면, 좌절-공격 이론을 적용시켜, 광주사람들이 겪는 정치적 사회적 좌절의 인식이 5월이 되어 확산되면서 5월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설명해

본다. 또 집단정체감 이론을 적용시켜 광주사람들이 김대중씨에게 던지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 본다. 물론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오월증후군의 시·공간적 특수성은 전혀 설명되지 못한다. 왜 광주사람만 정체감이 높거나, 파당적인가? 광주의 어떠한 특징이 그러한 현상을 빚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은 어떻게 심리학적 연구소재가 될 수 있는가? 왜 내가 아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까? 왜 지역사회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주제로써 다루지 않고 있는가? 다를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 보고자 본고를 준비하였다. 필자는 지역사회를 탐구 대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 막연한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본고의 과제로 삼았다.

1) 본고는 9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진흥재단에서 교내 사회과학연구소에 지원한 연구사업의 한부분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초고 형태가 1995년 11월 18일 사회심리분과학회 월례모임에서 발표되어 동학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날의 모임에서 발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후에 최상진 교수께서 많은 도움 말씀이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본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지역사회의 사회심리학적 연구

지역사회의 심리학적 연구의 성격

심리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지역사회는 성격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사람들이 이웃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생활터전이다. 지역사회는 역사적 사건을 같이 경험한 역사공동체이며, 지역민들이 처한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생산방식을 발달시켜 온 문화공동체로서, 공통의 가치관, 규범을 형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는 그 성원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고, 다른 성원들과 교류를 하며, 서로간에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사회와는 구별되는 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관, 생활관, 상징, 또는 심리학적 특징 등을 지닌 생활공동체²⁾이다.

지역사회는 성원들의 삶의 주요 무대이며 생활공간이다(life space). 이러한 생활공간이 지닌 심리학적 중요성은 일찌기 Lewin이 場이론적 접근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심리적 요인들의 총체로서 생활공간을 정의하고 이 공간에서 작용하는 힘들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haw & Costanzo, 1982). 그러나 개개 생활공간의 현상, 의미 등을 기술하거나 분석하기 보다는 사회현상으로부터 이론적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이들 개념간의 작용과정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주력하였다(차재호, 1994b). 이같은 그의 관심이 그의 후학들에 의해서 이어지면서 사회심리학의 전통이 잡혀갔고, 이 과정에서 생활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는 사회심리학적 관심권의 밖에 머무르게 되었다.

2)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시·군 또는 보다 소규모의 행정단위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이라도 행정적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라도 심리학적 관점거리가 되는 지역사회는 행정단위가 아니라 심리적 공동체이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작용하는 광역시, 도 또는 그 이상의 지역(영남·호남 따위)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심리학의 주요 탐구대상은 상호교류가 있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역에 대한 소속의식이 뚜렷한 지역사회라고 보겠다.

지역사회는 그것이 지닌 특성이 그 성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되어질 장면(context)을 제공하지만 아울러 지역사회는 사회심리 현상 그 자체(itself)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사회적 자극을 넘어서서, 사회적 의미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18 사건이 광주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분석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5.18은 광주와 분리될 수 없는 즉 「5.18=광주」라는 사회심리적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바다」와 「고향바다」는 심리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최상진, 1995b). 「바다」에서 연상되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의된 바다의 모습이기 쉽다. 그러나 「고향바다」에서 연상되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바다의 정경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지역인들에게 5.18에서 연상되는 것은 데모, 진압, 군인 등의 「표준화된」 정경이기 쉽지만 광주인들에게서는 곧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 귀를 찢는 총소리, 흐르는 선혈, 울부짖음, 참혹한 형상의 시체, 망월동 무덤 등 매우 뚜렷한 장면들이 현실적 구체성을 지니고 부각된다. 이점에서 광주와 5.18이 분리될 수 없다는 현상이 나타나며, 광주지역사회는 나름의 독특한 사회심리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는 성원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지역 사회 없는 성원을 생각할 수도 없다. 지역사회는 구 성원들의 의식, 지식,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획득원(source)이 되며 아울러 그것들의 타당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성원이 지닌 생각은 지역사회에서 받아 들여지므로써 지역인이 공유하는 의식이 되며, 배척되어질 때 사회적 현실성을 잃게 된다. 이를테면, 대구지역에서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차별받는다라는 소위 TK정서가 문제될 수 있다. 지역적 차별이라는 인식이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경우에 차별의 사실성과는 독립적으로 차별받는다라는 TK정서가 대구지역민의 사회의식 또는 정서로 현실적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이같은 정서가 타지역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 타지역에서는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성을 잃어 소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심리학적으로 탐구 대상이 되는 지역인의 의식은 그 분석의 단위가 지역사회가 된다(최상진, 1995b).

심리학적 지역사회 연구 심리학적 지역사회연구는 지역 및 지역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라고 하겠다. 즉 지역사회의 정서, 意識, 표상, 상징, 성격 및 성원들이 지닌 욕구, 가치, 동기, 성원들의 유형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이다.

현재의 연구양상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응용심리학적³⁾ 입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즉 잘 알려진 심리학의 원리나 접근법을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지역사회의 관심사(자연보호, 쓰레기 처리, 지역사회의 보건 등)나 현안문제를 이해 또는 해결하려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여럿 이루어져 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하므로 단편적이며, 비체계적이기 쉽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해야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누적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보다 흥미있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특성(의식, 정서, 가치, 동기, 행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 지역사회 연구는 하나의 독특한 연구장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주지역사회의 경우 5.18 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광주시민의 독특한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예: 오수성, 1990). 이 사건은 광주문제라는 사회문제학적(차재호, 1994b) 접근을 취할 수도 있지

만 그 영향이 매우 장기적이고 지역민들의 대부분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사회의 연구로써 다루어 볼만한 주제이다. 지역사회의 현안과 무관하지만 지역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알기 위해서 지역인들의 언어생활, 놀이문화 등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특성파악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일반원리의 현장확인 및 새로운 원리의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부상되는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 후,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및 앞으로 어떠한 형태가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심리학적 연구들 중에서 지역사회의 연구와 밀접하거나, 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분야를 살피고 주로 쓰인 방법론을 지역사회의 연구와 관련시켜 정리하겠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부상의 학문적 배경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과정과 행동의 보편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고 이 보편성의 탐구는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심리학도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심리학은 사회 성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과정과 관련된 사고, 행위,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정의되고(Allport, 1968), 연구의 초점을 개인에게 맞추어 개인의 인지, 태도, 행위, 대인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 점에서 사회성원의 연구를 통해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환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그들은 사회성원으로써 살아가는 개인들의 인지(사회도식)의 획득, 사물의 해석 및 작용과정을 이해하려 하고, 대상에 대한 태도의 구조, 형성과정 및 변화과정에 관심을 주며, 대인교류의 측면인 갈등, 도움행위, 공격행위의 심적 기제를 밝히려 하고, 집단속에서의 대인역학(group dynamics)에 학문적 흥미를 지녀왔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다루는 방법 면에서 사회심리학은 심리학의 주 방법론인 실험실 실험을 채택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및 과정

3) 차재호(1994b) 교수는 응용사회심리학적 연구와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응용사회심리학이 다루는 문제들의 일부만이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탐구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 보건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은 응용사회심리학의 대상이지만 약물남용, 청소년 범죄의 폭증과 같은 문제는 다급한 문제로서 사회문제의 연구이다. 즉 “한 사회가 앓고 있는 급성 및 만성질환”의 연구가 사회문제의 심리학이 다루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구분이 지닌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 분야가 모두 지역사회 연구에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분석에 연구초점을 두었다.

현대심리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W. Wundt는 두 가지 심리학의 필요성을 논하였다(van Hoorn & Verhave, 1980). 즉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한 구조주의 심리학과 인류학적 접근을 사용한 대중 심리학(völk psychologie)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류 사회심리학은 자연과학적 접근을 채택하여 엄정한 실험을 도구로 하는 경험과학으로 발달하였다. 실험방법이 심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문 전체가 방법론의 제약을 받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사회심리학계의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Gergen, 1973; Harre, 1984; Van Langenhove, 1995). 이러한 비판의 골자는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성의 회복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조금호, 1995).

이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학문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사회성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이다.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현상의 핵으로 지각되어지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에게서 분석되어질 수 있는 심리과정과 행위를 주된 관심사(귀인, 태도, 성격, 이차간 교류행위 등)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사회의 의미는 개인간의 교류양상 및 개인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구조와 작용(사회인지)으로 국한되는 현상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구조, 생활 환경, 문화 및 사회적 사건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관심영역의 밖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누적으로 사회심리학의 이론은 현실이 지닌 역동성과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였고 잘 통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비사회적 사회이론이 양산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Eskola, 1988).

사회성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사회구조, 문화, 사회적 사건 등이 지닌 영향과 의미를 연구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였다(차재호, 1994a; Himmelweit & Gaskell, 1990). 이러한 추세속에서 나타난 최근의 변화중 괄목할 만한 것은 문화에 대한 변수화이다. 이전에는 문화란 적절한 변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보편적 원리를 가리는 오염변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회성 회복 운동은 인간존재의

역사성과 문화적 구속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Gergen, 1985; Shweder, 1990).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사회심리학이 추구해온 인간의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의 추구가 매우 제한된 현상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각성(Pepitone & Triandis, 1987)을 낳게 하였고 그 결과 인간의 심리과정과 행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조금호, 1995; 최상진, 1995; 한규석, 1991 참조).

두번째 반향은 연구방법의 다각화이다. 사회심리학이 실험실에서 조변된(manipulated) 가상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개인 행동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려는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사회심리학은 일반심리학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비사회적인 사회과학이라는 비판(Shweder, 1990)을 받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보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루는 현상이 인간의 생리에 연원을 두고 있거나, 인류생태계의 보편적 구조와 관련된 특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Pepitone & Triandis, 1987). 사회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은 대부분 상황자극의 촉발이 인지 및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개인내적인 변수들의 작용기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작용기제는 사회문화적 배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을 이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인지부조화 이론은 '행위와 태도의 불일치→심적 불편의 경험→행위의 정당화'의 도식으로 정리된다. 이 이론은 불일치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가 개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화 또는 개인에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론이 보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론이 다루는 상황자극의 의미가 문화에 관계없이 일정해야(constant)한다. 그러나 문화가 근본적으로 의미의 부여체계이므로 이같은 항상성을 가정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본고의 초고에서 '...사회심리학 연구가 보편성의 허구를 추구했다...'는 언급에 대하여 본고의 심사위원은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의 특징이 보편성을 부정하지도, 사전에 인정하지도 않음'(Shweder & Sullivan, 1993)을 들어 보편성의 추구가 허구적이라는 필자의 논지를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은 인간을 인위적인 문화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의도적인 존재로써 보며, 이러한 환경을 무시한 초월적(transcendental) 이해는 일반 심리학의 영역은 될 지언정 문화심리학은 될 수 없다'는 입장(Shweder, 1990)의 연장선에서, 필자는 사회심리학이 사회적 의미가 배제된(social vacuum) 상태의 심리학적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비판은 실험실 실험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조사연구의 확대, 담론분석, 표상분석 등을 사회심리학의 적절한 방법으로 대두시켰다(Smith, Harre, & Van Langenhove, 1995 참조).

이같은 두 가지 반향은 사회심리학의 지평을 확대시켰으며, 지역사회를 사회심리학의 적절한 연구대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생활의 장일뿐 연구대상으로 취급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현상은 지역사회의 구분을 초월한다는 전통적인 믿음과 지역사회라는 변수가 실험적인 접근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더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심리학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현실과 유리되지 않고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도울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접근

사회심리학적 연구 사회심리학에서 지역사회는 학문적인 관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학문의 응용 또는 실천의 형태로 관심을 지녀왔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로써 최근에 두드러진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에서 지역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김진국, 1987; 박정순, 1988; 이진환, 1988)가 80년대 후반에 여럿 이루어진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영호남의 지역민들이 서로 상대지역민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반감적 정서를(투표행위에 의해 표출된) 태도의 심리학적 이론 또는 편견의 이론 등을 적용시켜 해당 지역사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당면한 사회문제(차재호, 1994b)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인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들이라고 보겠다.

이 유형의 연구로써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역인의 의식, 가치관, 태도의 조사연구들이다. 의식구조 또는 가치관은 개개의 사회성원들이 사회현상에 직면하여 현실적 인식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사고의 틀로 여겨진다(문석남, 정근식, 지병문, 1994). 지역인들의 의식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적 상황에 의해서 획득·변화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방향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현안 관심사, 전통, 법, 사회운동, 지역경제 및 정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 관심사에서라기 보다는 정책수립,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의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및 그 대응책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학자, 언론학자, 및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행해지며 설문조사 또는 Q 분석(Stephenson, 1953)의 형태를 주된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학적인 시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뚜렷한 심리학적 초점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는 지역사회 및 그와 관련된 특징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홍콩에서 중국어와 영어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은 홍콩귀속문제를 두고 맺어진 영국과 중국간의 조약이 체결되기 전후로 중국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였다(Young, Giles, & Pierson, 1986). 지역사투리와 표준어의 용도 및 상대적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Fishman, 1972; Giles & Farrar, 1979), 이스라엘에서 유태인과 아랍인들의 의사소통양상을 비교한 연구(Katriel, 1986) 등도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려는 연구들로써 유관된 주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남지역인들이 타지에 가서 호남사투리의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험적인 절차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의 자긍심에 대한 분석적 연구도 심리학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경제활동, 놀이, 문화활동, 정치행위 등을 분석하여 지역인의 심리를 유추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류학과 민속학의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지춘상, 199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현장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들을 택하고 있으며 연구방법 및 탐구대상에 있어서 전통적 심리학의 접근법과는 차이가 많이 있으며 후술하게 될 사회 표상론적 접근과 관련이 깊다.

여기에서는 이들 연구가 지역사회의 심리적 측면에 관하여 제기하는 가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지니고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할 가치가 있음을 밝히겠다. 이를테면, 민속학자 지춘상(1991)은 호남지역의 민속놀이 및 민속예술의 관찰로부터 호남인의 정서가 지닌 특징을 유추하고 있다. 그는 남도의 민요와 판소리가 지닌 특징으로서 哀情性을, 민속놀이(고싸움, 줄다리기, 땅배앗기 놀이)가 지닌 激情性을 추출하여 남도인의 성격특성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남도의 민속놀이가 타지역의 그것에 비해 유독 과격함을 보이는 이유로서 남도인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니게 된 宿根이 “대결과 경쟁의 장(한풀이 대상집단이 아닌 무관한 집단들간의)이 마련되면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하지만 차차 경쟁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심저에 자리한 한풀이의 대상으로 무의식중에 환각화되면서 격렬한 결전장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의 우위획득은 堆積된 열등의식과 한의 일부를 푼 것으로 되어 쾌감을 수반하게 된다”(p. 88)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은 일반인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고 여겨지지만 사회과학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지

5) 이 두 가지 특징 외에도 지춘상교수는 같은 글에서 남도 민속이 지닌 특징으로 서화에서 나타나는 幽玄性과 시나위 가락에 깊이 배어있는 變調性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유연성을 화려한 외형미가 없지만 보면 볼수록 감칠 맛이 있으며, 살짝 감추어진, 그리고 폭 골삭아서 밖으로 살며시 스며나오는 정취라고 말하며 이는 남도의 민속 곳곳에서 보여진다고 주장한다. 변조성이란 불협화음을 내는 듯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부조화 속의 조화미를 뜻한다.

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같은 결론의 성립과정이 지닌 비과학성(이를테면 비체계적 관찰) 때문일 수도 있고, 결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난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결론이 소구력을 지닌 한에 있어서는 탐구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체계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성립되지 못하였지만 학계에 미친 영향력을 상기해 볼 수 있다. 검증 가능성의 문제는 사회과학자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검증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이론 또는 방법론의 발전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시 사회심리학자들은 시야를 확대시켜 민속학 인류학 등 타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

공동체 심리학의 연구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지닌 연구는 응용심리학의 분야로 발달한 공동체(community) 심리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심리학은 지역공동체, 관계공동체로 연결되는 성원들의 정신위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생활방식, 삶의 만족도, 환경문제 등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분석으로 탐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공동체 심리학의 탐구대상이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 대부분이 지역사회 심리학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굳이 둘 사이를 구분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공동체 심리학의 주제가 정신건강과 같은 비교적 한정된 것에 비해서 지역사회 심리학은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비교 심리학의 연구 사회심리학에서 문화라는 변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민족, 국가 등 이질적 문화간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금 사회심리학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문화가 다른 이민족간의 비교연구는 이미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예: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문화란 한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써 인적 물질 환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주도하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발달의 방향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문화는 해당 성원의 대인지각, 교류행위, 성격형성, 가치관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국가간 비교와 더불어 같은 나라권에서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민간의 행태에 대한 비교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농촌 지역민간의 비교연구(Park, 1975; 박덕후, 1990)와 같은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와 같이 이민족들이 정착한 서부와 남부의 지역민들에게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피해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지역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경제적인 변수, 교육정도, 정치적인 변수 등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심리적 귀인 양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s & Nisbett, 1991). 즉 서부인들은 내귀인 성향을, 남부인들은 외귀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같은 귀인 성향의 차이가 재해에 대한 대비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 연구와 조사방법 지역사회의 심리적 또는 사회학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이다. 연구자는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이슈가 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설문지를 제작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지에는 지역사회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문항들(류창하, 안춘옥, 1991 참조)과 기존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심리검사(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2 참조)가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손쉽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높고 시행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구조화시킨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다루는 현상을 정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즉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양적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 현상을 조작적 정의과정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현상이 지닌 복잡성과 역동성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둘째, 설문지의 분석과정에서 추리통계를 사용하므로써 통계적 2종오류(차이가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오류)

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리의 관행은 심리측정에서 측정도구가 지닌 민감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따라서 지역차이가 무시되는) 이중오류의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연구자의 가설과 이론적 선호가 문제의 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응답자의 사회적 선회(social desirability) 욕구가 작용하므로 응답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단점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가능하다. 실험방법이 그러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험방법은 독특한 별개의 접근법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연구와 실험방법 심리학의 주된 방법론인 실험법은 독립변수를 조변(manipulate)하는 상황을 구성하여 특정의 반응변수(종속변수)상에 나타나는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실험에서는 변수의 조변이 반응측정에 선행하므로써 변수간의 인과성에 대한 강한 추론이 가능하다. 실험이 고도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들이 관심있는 것은 변수들 간의 구조 및 영향과정(process)이며 이 경우 변수들은 그 이론적 개념이 조작적으로 정의된(operationaly defined)것 들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실험은 Lewin(1951)에 의해 적극 옹호되었으며, 그는 사회현상을 축소하여 실험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차재호, 1994b를 참고바람). 즉 Lewin은 사회현상이 지닌 구조를 실험실로 반입(trans-position; 차재호, 1994b)시켜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실험의 비중을 두었다. 이같은 실험실 실험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역사회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성원들이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확인하는 목적에서 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의 성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자극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제, 사투리와 표준말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 양상의 분석과 같은 문제에는 실험실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실험연구는 실험실보다는 현장에서 행해지는 현장실험 또는 의사실험(Campbell & Stanley, 1963)이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현장실험은 실험참

가자의 우선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내적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형태로 실험처치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에서의 우선배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연구(한규석, 1989; Han & Choe, 1994)는 호남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황진술문을 체계적으로 조변시켜 제시한 설문지를 우선적으로 배포 회수하여 각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같은 방법이 실험을 현장 연구에 도입하는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간의 차이가 관심인 연구라면 동일한 자극을 각기 다른 지역민에 처치하므로써 지역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경우 두 지역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 반응은 두 지역간의 흥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지역의 어떠한 면이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것인지를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자가 관심 있는 변수에서의 지역차이를 실험전에 확보하고 다른 특징에 있어서 지역차이가 나지 않게끔 조정함으로써 지역차에 대한 다양한 대안가설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사회표상론적 접근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연구와 실험연구가 지역사회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심리학적 연구법이 지닌 인식론적인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태성, 의미, 역사성을 담아 내기 위하여는 이들 방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들 방법에 대한 한가지 보완적 접근으로 사회표상론적 접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18세기 철학자 Vico에 대한 Berlin(1976)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정체적이거나 고정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인간이 스스로가 처한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 세계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노력을 하므로써 인간은 세상을 전환(transform)시킬 뿐 아니라 자신을 전환시킨다고 비코는 주장한다. 가변적인 인간들에게서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려는 접근은 사회적 존재로

써의 인간의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간의 창조와 무관한 자연계의 연구에나 적합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면에서 비코는 선형적(연역적) 및 귀납적(경험적) 방법은 자연과학적 대상에 적합한 반면, 인간계에 대해서는 구상(fantasia)의 방법이 부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구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경험 세계의 표현인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의 기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최상진, 1990 참조).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회심리학의 발전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즉 현대의 사회심리학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선호하며 현상의 관찰로부터 이론적 개념을 끌어내어 이들 개념들 간의 영향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경험과학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같은 특성을 문제시 하고 이를 탈피하여 사회적 형태의 사회심리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유럽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접근법들을 주장하였다(Harre, 1977; Moscovici, 1984; Smith, Harre, & Van Langenhove, 1995)⁶⁾.

이들은 사회의 지식세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Moscovici, 1984; 최상진, 1990 참조). 그 하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이 그 지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과 물적 근거가 있는 物化적 지식세계이다. 다른 하나는 합의적 지식세계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합의로 구성된 상식적 지식이다. 물화적 세계에서는 지식의 객관적·논리적 근거와 증명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은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출되고 일반인들에게 배워져야 될 것으로 부과되어진다. 물화적 지식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을 수학화 과정을 통해 생성한 것으로 만들어 발견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합의적 세계에서는 진위의 근거보다는 의미성, 가치성, 유용성이 중요하다. 전체보다는 결론이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합의적 지식세계는 사람들에게

6) 국내에서 이들의 접근법을 소개한 글이 있다. Harre의 접근법은 민경환(1986)을, Moscovici의 접근법은 최상진(1990)을 참고하기 바람. 본고에서의 표상론 논의는 최상진(1990)의 논문에서 큰 도움을 받았음.

게 생소한 것을 친숙한 것으로 전환시킨다. 물화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이 필요하다면, 합의적 세계를 다루는 도구는 사회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⁷⁾.

Moscovici는 현대심리학의 인식론적 특성인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추구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써 표상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었다. 그에(1963, p. 25) 따르면 사회적 표상은 “지역사회의 집단체가 행위의 양식 설정과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대상물(인간을 포함한)을 의미있는 실체로 형상화한 것”으로 정의된다. 표상은 어떤 대상(사물, 개념, 사람)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적 표상체이며, 동시에 이런 표상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상태를 모두 지칭한다. 즉 표상은 대상에 속하는 속성인 동시에 사람에게 속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표상은 가변적이며, 전파성이 매우 높다. 현대사회에서의 표상은 정치, 과학, 사회문제에 관련되어 기존의 표상이 고정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표상이 나타나고, 이전 것을 대체시키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광주 5.18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5.18에 대한 시각이 폭동, 사태, 민중항쟁, 민주화 투쟁, 민중의거 등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5.18에 대한 표상은 그 내용이나 구조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즉 광주시민의 것이 외부인들의 그것에 비추어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표상의 구조가 매우

높은 역동성을 지니고, 사회적 과정속에서 생멸한다는 점에서 Moscovici는 뒤르켐의 보다 고정적 형태의 「집단적 표상」을 「사회적 표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고 있다⁸⁾.

한편, 표상은 우리가 어떤 사상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해 오는 구조화된 인지체⁹⁾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의 아동은孝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즉 스스로의 독자적인 사고나 정식교육을 통해 효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해 오는 효에 대한 기성적 표상을 단순히 반추하는 형태의 재사고를 하고 이를 머리속에 재현할 뿐이다. 효라는 현상은 이미 인지적으로 구조화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상태에서 한국의 문화속에 표상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동이나 성인은 이를 의심하거나 의식적으로 인식할 겨를도 없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규범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최상진, 1990).

사회적 표상의 일차적 역할은 생소한 사건을 접했을 때 이를 파악하는 인지태를 부여하고 기존의 범주속에 새 자극을 위치시키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들 자극이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형의 인지태로 모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세상사 및 역사적 사상에 대한 전형적 해

7) 물론 이 양자의 세계가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며 상호소통이 이루어진다. 지구는 동글다는 과학적(물화적) 지식은 상식(합의적 지식)으로 전화되었고, 많은 상식은 과학적 탐구에 의해 물화적 지식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두 지식세계의 대비는 심리학의 구성과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리, 지각심리학과 같이 자연과학 모형을 추구하는 심리학은 물화적 세계의 지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과학적 심리학의 모색은 사회심리학의 특색이기도 해 왔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이 일반인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일반인의 심리가 물화적 지식세계보다는 합의적 지식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때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벗어나 표상론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8) 사회적 표상의 개념은 뒤르켐의 집단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에서 유래된다. 사회학에서는 표상을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원소적 요소로 보고, 이 표상의 개념을 곧바로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표상을 구체화하며, 그의 구조와 기능, 변화과정, 사람에게의 영향과정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사회학에서 표상이 설명도구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반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취급된다(Moscovici, 1984).

9) 사회적 표상은 사회도식(social schema)과 상당부분의 미가 중첩되고 있다. 도식이란 한 대상의 특성과 개념 및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인지적 구조체로 정의되어 진다(Fiske & Taylor, 1991, p.98). 도식은 인간의 정보처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으로써 그 유용성으로 사회심리학에서 대인지각, 판단 및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용도에도 불구하고 도식이 사용자의 인지구조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반면, 사회적 표상은 사회에 공유된 의식체계로써 공유성과 문화성이 강조된다고 보겠다.

석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표상의 생성과정 현실세계에 낯선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표상화 과정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작용한다(Moscovici, 1984). 첫번째 기제는 거점화(Anchoring)인데 이는 낯선 것을 이미 지니고 있는 친숙한 배경에 끼어 맞추어 파악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 이론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약을 쓰지 않는 의료행위」라는 실질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표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의사 → 신부, 환자 → 신자, 자유연상 → 고해로 대응시켜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Moscovici, 1984). 이 거점화는 낯선 것을 범주로 분류하고 이름을 짓는 과정이다. “어떤 것”이라는 분류와 이름이 주어졌을 때 생소한 대상에 대해 비교와 상상의 터가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거점화가 이루어지면 다음 기제인 구체화(Objectification)로 표상과정이 진행된다. 구체화는 추상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은 내용물을 지닌 조작할 수 있는 실체를 지니게 된다. 대상에 대한 像이 형성되어 둘이 결합되면 이 상은 개념적 구조를 재생할 수 있는 이미지 구조로서, 새로운 개념을 동화시켜 표상으로 재생해내는 모형의 역할을 하므로 이를 구상적 핵(figurative nucleus; 최상진, 1990)이라고 부른다. 이 구상적 핵은 관념의 세계를 물리적 지각의 세계로 대체시킨다.

현상의 구상적 핵이 구체화되고 인식의 틀이 사회에서 수용되게 되면 그것이 지녔던 원래의 의미, 상황적 특성과는 유리되어 독립적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다. 이는 마치 유명해진 어구가 그 쓰여진 맥락과 무관하게 다양한 맥락에서 쓰여지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된 인식 또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 그 자체가 되어 현실만큼이나 중요성을 지니고 성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부연한다면, 표상론자들은 사회적 표상이 현실을 재창조해 내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일상에서 우리가

개념적 대상을 다루면서 겪는 어려움은 대상에 대한 표상화가 어려울기 때문이 아니라 표상화된 것을(대상자체가 아니라) 다루는데서 오는 것이다. 즉 표상이란 재구성된 것이며 그것이 구성된 맥락과 독립된 자체의 생명력을 지닌다. 마치 속담이나 전설이 그것을 처음 말한 사람이나 건축가의 의도와는 전혀 별개의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거점화와 구체화의 두 가지 기제를 통해 낯선 대상 또는 관념이 친숙한 대상으로 바뀌며 사회적 표상으로 자리잡는다.

사회적 표상과 실험적 연구 Moscovici는 사회심리학에서 실험방법이 기여한 점이 큰 것을 인정하는 한편, 실험법의 강조가 사회학을 모르는 사회심리학자들을 양산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표상의 연구에서 실험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 표상의 특성상 사회심리학에서 표상은 종속변수라기 보다는 독립변수의 위치에 있다. 우리가 접하게 된 대상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대상 자극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촉발되는 기존의 표상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이는 표상이 자극의 특성을 결정지으면서 아울러 그것이 자아내는 반응까지를 결정지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동기가 지각을 조변하는 경우 사실은 표상을 조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Faucheux & Moscovici (1968; Moscovici, 1984에서 재인용)는 피험자들에게 경쟁적인 카드놀이를 하게 하면서 반에게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머지 반에게는 결과가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고 알려 주었다. 피험자들의 놀이 행위는 두 조건에서 상당히 달랐다. 자연스러운 상대와 놀이를 한다고 여긴 사람들은 놀이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애썼고, 모종의 전략을 구상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운을 상대로 한다는 사람들은 규칙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카드가 뒤집어 질 것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즉 자연스러운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40명중 38명이 규칙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반면에 운을 상대하는 경우 오직 12명만이 규칙을 파악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반응적 행위를 결정짓는 것이 단순히 동기

나, 포부수준이나, 인지원리라기 보다는 놀이 또는 운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며 이것이 실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표상의 실험적 연구는 표상이 지닌 풍부한 면모를 촉발시켜서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독립변수의 구체적 조작효과가 정해진 행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전통적 실험과 차이를 지닌다.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광주 5.18의 표상을 촉발시키는 사진자극과 다른 역사적 자극을 실험자극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는 연구를 해볼 수 있다.

이론 및 가설검증에 의해 행해지는 실험이 현상의 면밀한 분석에 큰 기여를 한 면이 있지만, 심적 과정에만 관심을 주었고, 개인의 행위분석에만 경도된 사회심리학의 현상이 빚어졌다. 실험연구는 실험가능한 것만을 다루는 한계, 현실과의 괴리, 조작적 정의가 지닌 한계 등의 약점으로 인해 사회표상의 연구로서는 제한받는 면이 많다.

사회적 표상과 관찰연구 Moscovici는 표상의 연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관찰연구로 보고 있다. 표상론자들은 사회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관찰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일상의 관찰과정에서 우리는 현상을 세밀히 기술해 내야 한다. 현상의 반복적 관찰이 누적되면서 규칙성이 나타나거나 발견되면 이로부터 이론이 구성되는 것이 과학의 일이다. 이론의 포괄성은 자료가 얼마나 많이 수집되었으며, 그 규칙성이 지니는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사회적 표상의 발현상, 그것의 구조와 다양한 분야에서 구현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주도 면밀히 묘사하고, 이들을 비교하므로써 타당한 의미를 지닌 이론이 출현하게 된다(Moscovici, 1984).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에서의 관찰연구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유행가, 대자보, 노랫말, 옷차림 등)을 의문하고 설문지 상에 또는 실험실에서 수집한 자료에만 가치를 두어 왔다. 이는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개념과 기제들--인지부조화, 귀인, 반발심

등--은 보편적인 것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만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사회심리학자들은 논리실증적(logico-positivistic) 전통에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 및 그의 작용과정의 발견에 주된 관심을 주어 왔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합리적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 합리적 세계는 표상과 사람들간의 관계로 유지된다. 우리가 지닌 표상이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상이 상징적이며, 공유된 인지적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상의 내용 및 그 발현형태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표상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오고 가는 의사소통상의 대화를 중시한다. 대화는 합리적 세계에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묘사해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사회적 표상은 지식을 획득하며 동시에 획득된 지식을 타인과 교환하는 수단이 된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지식은 독자적인 사유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 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급받는다.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속에서 반복적으로 교환되는 인지내용은 객관성을 띄며 구체적인 외적준거를 장착하게 된다.

지역사회 연구와 표상이론 지역사회 연구에서 사회표상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전래되고 있거나, 형성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표상의 내용과 구조, 그 표상이 지닌 심리학적 의미,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표상적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인이 지닌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지역사회가 봉착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거나, 나아가서 문제의 해결책을 시사할 수도 있다.

생활상에서 부딪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세계의 많은 정보들은 사람들에게 표상의 형태로 축약·파악되어지고 이 표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생활해 나간다. 즉 현실로부터 표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시가 어떻게 표상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몇몇 이루어졌다. Milgram 등(1972)은 행정적 뉴욕시와 심리적 뉴욕시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시민들이 위치감과 방향감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시의 구상성(Imagibility)은 어떠한지에 관심을 지녔다. 뉴욕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200명의 시민들에게 뉴욕시의 여러 거리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그 거리가 어디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뉴욕시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표상화되었음을 보였다. 즉 맨하탄지역의 거리가 가장 잘 식별될 뿐만 아니라(자기가 거주하는 구역의 거리보다도 잘 식별하며 이는 맨하탄에 살진 다른 구역에 살진 차이없음), 퀸즈지역은 구상성이 매우 떨어져 위치감의 파악시 가장 혼동이 심한 구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시의 물리적 실재가 거주민들의 심리에는 매우 불균등하게 왜곡된 형태로 표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Milgram & Jodelet, 1976)는 유사한 방법을 프랑스의 파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파리인이 지니고 있는 파리의 심리적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심리학적 관심에서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심리표상을 분석한 연구도 지역사회의 표상연구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최상진 등(Choi, Kim, & Choi, 1993; 최상진, 최수향, 1990)은 한국인의 대인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개념으로 정과 우리 등을 설정하고 이들 개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상화되어 있는지를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과 관련해서 그들은 (1)정든다는 말을 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2)정은 어떤 경우에 드는가? (3)정이 안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비교적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한국인은 교환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정을 바탕으로 한 탈교환적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들추어 내었다.

우리성(we-ness)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자들은(Choi & Choi, 1994)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소수를 대상으로 (1)우리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은? (2)당신이 느끼는 중요한 우리 집단은? (3)어떤 사람이 우리의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그에 대하여 느낌이 변하는가? 하는 등의 간단한 질문들을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우리성은 개인적 나가 사라진,

개인들 간의 경계가 용해된, 전체가 강조되는 점에서 캐나다인의 우리성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물론 이같은 조사 또는 관찰연구 외에도 앞서 언급 하였듯이 표상을 촉발시키는 실험자극을 이용한 실험 연구도 적절히 쓰일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사회심리학은 사회학과 심리학의 중간지대에 놓인 학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방법적인 편식과 과정 분석 위주의 접근에 의해서 사회심리학은 사회성을 상실한 지식을 양산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실험실 밖의 연구방법을, 과정보다는 현상과 내용을 다루자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관심사를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연구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의 연구에 사회심리학자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성원들간에 영향력이 행사되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생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성원의 행위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의미체계로서 작용하며 성원들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심리학적 연구는 지역사회의 정서, 의식, 표상을 분석하여 지역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이다.

기존의 사회심리학의 접근에서 지역사회의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응용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 현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형태 또는 의사실험의 형태로 지역연구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응용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장르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는 심리학의 일반원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범으로써 흔히 쓰이는 조사방법에 더해 실험적 연구가 큰 몫을 더할 수 있다.

이들 전통적인 연구법들은 연구관심에 따라서 문제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는데 선택적으로 또는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관점이 지닌 인식론적 특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연구가 받는 제한점을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써 사회표상론적 접근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표상이란 “상식의 현대판”(Moscovici, 1981a, p. 181)이며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정신(social mind)을 재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사회적, 자연적, 정신적-들을 서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표상을 이용한다. 사회적 표상은 의미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 의미의 공동체는 모두가 동의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표상을 탐구하는 사회심리학은 상식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학문이어야 한다. Moscovici는 사회심리학이 맞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이 현대의 인류학적 특성을 지니고 인식론(epistemology)보다는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981b, viii - x). 그는 사회심리학은 자기문화의 과학이며, 따라서 현대세계의 인류학이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사회적 표상 접근이 사회심리학에서 결핍된 현상학의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심리학의 주요과제는 이같은 표상의 특성, 연원,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에 사회심리학처럼 적격한 분야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표상론적 접근이 지역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의 하나로 여겨지지만 이 접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사회적 표상이 구성원 개인의 머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한, 사회심리학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책으로써 사회적 표상이론은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우를 다시 범하고 있다(Parker, 1989, p. 98). 표상론적 접근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식의 개인적 사회심리학으로 전락할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Harre, 1984).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단위를 개인에 두지 말고 의미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다. 그러나 지역을 분석단위로 잡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수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 Allport (1924)적 접근이다. 이 접근이 지닌 문제점은 「사회와 성원」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문제¹⁰⁾와 다르지 않다. 개인적 접근을 취하지 않고 역사적 및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때 심리학에서 요구하는 정밀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도 종래의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최상진, 1990). 그러나, 지역사회를 보는 사회과학자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 공통점을 지니더라도, 분야별로 독특한 시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정밀한 자료분석을 도모하는 경우에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발견들이 독특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 113-147.
- 류창하·안춘옥(1991). *사회여론조사 설문모음집*. 서울: 지식산업사
- 문석남·정근식·지병문(1994). *지역사회와 사회의식* --광주 전남 지역연구 문학과 지성사.
- 민경환(1986). 사회행위의 연구: The ethogenic approach. *사회심리학연구* 3, 199-216.
- 박덕후(1990).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양상에 대한 도시 농촌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0) 「사회가 지닌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사회학의 역사만큼 뿌리 깊은 문제이다. 콤테(Comte, A.)와 뒤르켄(Dürkheim, E.)은 사회현상이 개인의 의식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집단적인 실체는 성원 개개인의 의식으로부터 기원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의식을 규제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개개인의 파악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고 본다(Graumann, 1988).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접근에 의해서 사회현상이 파악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입장의 대표자가 F. Allport이다.

- 박정순(1989). 지역감정 문제의 본질: 실상과 허상. *경북대 사회과학연구*, 5, 187-205.
- 오수성(1990). 광주5월 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이수인 외(편), *광주5월 민중항쟁*. 풀빛
- 이진환(1989).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조금호(1995).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pp. 121-177.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
- 지춘상(1991). 남도민속예술의 특성. *전남대학교 어문학 연구회(편), 대학국어*. 전남대출판부.
- 차재호(1994a).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운주정범모 박사 고회기념 학술세미나, *교육의 과학화, 사회화, 인간화*, 11월 5일. 서울
- 차재호(1994b).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 5-19.
- 최상진(1995a). 문화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pp. 178-183.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
- 최상진(1995b). 사적인 대담. 12월 10일
- 최상진(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9, 74-86.
- 최상진·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1-9.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132-155.
- 한규석(1989). 대인행동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논총(3), 지역사회의 연고주의-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pp. 79-103.
- Allport, F.(1924). *Social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 Allport, G. W.(1968).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2nd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erlin, I.(1976). *Vico and Herder: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NY:Viking.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D., & Stanley, J.(1963).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Choi, S-C., & Choi, S-H.(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Publisher.
- Choi, S., Kim, U., & Choi, S-H.(1993). Indigenous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s: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J. Berry(Eds.),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Sage.
- Eskola, A.(1989). *Blind alleys in social psychology: A search for ways out*. Amsterdam: North-Holland.
- Fishman, J. A.(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 and macro-sociolinguistics in the study of who speaks what language to whom and when. In J. B. Pride and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Fiske, S., & Taylor, S.(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Y: McGraw-Hill.
- Gergen, K.(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nt and implications. In K. Gergen & K.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s of the person*. NY: Springer-Verlag.
- Gergen, K.(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iles, H., & Farrar, K.(1979). Some behavioral con-

- sequences of speech and dress style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209-210.
- Graumann, C. F.(1988). Introduction to a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In M. Hewstone et al.(Eds.),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A European perspective*.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 Han, G., & Choe, S-M.(1994). Effects of family, region, school network ties on interpersonal intentions and the analysis of network activities in Korea. In U. Kim et al.(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77-84. Thousand Oaks, CA: Sage.
- Harre, R.(1984).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social representation. *Social Research*, 51, 927-938.
- Harre, R.(1977). The ethogenic approach: Theory and practic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84-314.
- Himmelweit, H. T., & Gaskell, G.(1990). *Societ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 Hughey, J., & Bardo, J.(1984). The structure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southeastern American c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3, 91-99.
- Katriel, T.(1986). *Talking straight: Dugri speech in Israeli sabra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gram, S., & Jodelet, D.(1976). Psychological maps of Paris. In H. M. Proshansky, W. Ittelson, & L. Rivlin (Eds.), *Environmental psychology: People and their physical settings*. 2nd ed. NY:Holt, Rinehart & Winston.
- Milgram, S., Greenwald, J., Kessler, S., McKenna, W., & Waters, J.(1972). A psychological map of New York city. *American Scientist*, 60, 194-200.
- Moscovici, S.(1981a). On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pp.181-209. London: Academic Press.
- Moscovici, S.(1981b). Foreward. In P. Heelas & A. Lock(Eds.), *Indigenous psychologies: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Academic Press.
- Moscovici, S.(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 In R.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 pp.3-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sbett, J., & Ross, L.(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한규석, 박상철(역), 인간의 추론. 성원사.)
- Parker, I.(1989). *The crisis in modern social psychology—and how to end it*. London: Routledge.
- Pepitone, A., & Triandis, H.(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Robinson, J., Shaver, P., & Wrightsman, L.(1991).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oss, L., & Nisbett, R.(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Shaw, M., & Costanzo, P.(1982).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2nd ed. (홍대식(역), 사회심리학 이론. 서울: 박영사.)
- Shweder, R.(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 Stigler, R.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 Sullivan, M.(1993). Cultrual psychology: Who needs i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497-523.
- Smith, J. A., Harre, R., & Van Langenhove, L.(1995). *Rethinking psychology*. London: Sage.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Hoom, W., & Verhave, T.(1980). Wundt's changing conceptions of a general and theoretical psychology. In W. Bringmann, & R. Tweeney (Eds.), *Wundt studies: A centennial collection*. Toronto: Hografe
- van Langenhove, L.(1995).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experimental psychology and its alternatives. In J. Smith, R. Harre, & L. Van Langenhove (Eds.), *Rethinking psychology*. London: Sage.
- Young, L., Giles, H., & Pierson, H.(1986). Sociopolitical change and vit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459-469.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f Community: Its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ies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urrent trends i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reflect diversity in its themes and methods for research. Community can become an important topic for psychological research.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needs for community research from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characterizes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f community. It reviews major research fields to show how each field may contribute to community research by social psychologist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for community research, the social representational approach(Moscovici, 1984) can be usefully employed and, thus, discussed in greater details.